

대전의 꿈!

♪ 김동화 | © 승인 2013.07.28 12:44

[시사프리즘·특별기고] 김동화 한밭대 형가리 부다페스트공대 방문교수



꿈! 밤에 잘 때 꾸는 꿈이 아니다. 개인마다 바라는 꿈이 있어야 현재는 고달프더라도 삶이 활기차다. 꿈이 없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힘들다. 개인만이 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방 자치단체, 국가도 꿈이 있어야 주민들 삶이 역동적이다. 일자리 창출, 복지문제, 생계수당 등이 잘 이루어져야 잘 했다고 한다. 행정적 발상에서만 보면 당연한 이야기 이지 생색낼 일도 아니다.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를 이끄는 장들은 꿈과 희망을 강하게 던져 주어야 한다.

꿈이 없는 지자체나 국가는 그 존재도 유지하기 힘든 것이 21세기 현실이다. 지중해 연안에 찬란한 문명을 건설하여 인류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나라! 그리스가 거대한 도시국가를 건설 할 수 있었던 힘은 신에 대한 희망이었다. 통치자는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거대한 신전이 필요 했고 그것은 곧 민중들의 희망이기도 했다. 그 힘은 도시국가 건설이라는 막강한 힘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2012년도 그리스 재정 빚은 GDP대비 빚은 175%까지 올랐다. 2012년 국민소득은 2만 2천불정도이다. 천혜의 기후 조건과 관광 해양 산업으로 70년대까지는 발전하였으나 해운 산업 주도권은 이미 한국과 중국으로 넘어갔고 유일한 관광산업도 국제 경제 위기가 닥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정치꾼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 과도한 공약을 남발하여왔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선심을 일삼아 왔다.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사탕발림으로 국민들을 혼란시킨 것이다.

중국은 요즘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심찬 꿈과 희망을 국민들에게 제시한다. 새롭게 지도자가 나타날 때마다 변하는 중국을 한국은 읽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세계리더 국가 꿈을 실천하는데 실패 했다. 20년 넘도록 경제는 제자리걸음이다. 왜? 정치인들이 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를 왜곡한다. 그래야만 극우파들에게 만이라도 정권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제패를 다시 꿈꾸고 있다. 그래서 과거는 사과하고 유럽주변국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골치 아픈 그리스를 놓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럽의 온통 기반 시설은 독일 제품이다. 유럽 연합을 탄생시켜 주도권을 잡은 것도 독일이다. 꿈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헝가리는 유럽전역을 차지 할 만큼 큰 나라였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독자적으로 헝가리 미래를 설계 한 것이 아니라 안이하게 독일편에 섰다. 결과는 국토와 인구의 3분의 2를 다른 곳에 넘겨주고 현재의 작은 나라로 전락했다.

대전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여론의 추이를 보다가 어느 정도 진흙탕 싸움이 마무리 될 때쯤이면 나타나는 식이다.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꾼들이 하는 낡은 수법이다. 그 사이 주민들은 편 갈라 서게 되고 지친다. 한국의 중심부! 대전의 실리콘 메카! 세종시! 도시철도! 과학비지니스! 이들과 연계시켜 무엇 하나 우리들에게 시원시원한 결정과 희망을 던져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스, 헝가리, 독일에서 보는 공통점은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를 보는 혜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었다. 유럽을 탐방하면서 얻은 결론이다.

선각자들의 공통점은 미래를 내다보며 산다는 것이다. 지도자나 장들이 가장먼저 갖춰야 중요한 덕목이다. 대전시장이라는 곳은 여론에 난 작은 기사나 챙기며 맘에 안든 기사를 보고 컬럼 제공자에게 해명이나 하는 한가한 샐러리만 자리가 아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다보니 진심으로 대전의 미래를 설계 할 지식과 혜안을 개발하지 못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에 여론 추이를 보아 진흙탕 싸움 말기에 나타나 생색내는 정책 결정을 하거나, 사사로운 욕심에 선심성 행정이나 하는 행위가 되풀이 된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한 피해는 대전 시민에게 돌아간다. 국운이 상승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아시아패권을 쥐겠다는 야심한 통 큰 정치인을 대전은 생산해 낼 수는 없을까? 아니, 평범한 우리들에게도 큰 꿈, 큰 희망을 대전시는 던져 줄 수는 없을까? 아테네 지하철 거지들의 남루한 구걸은 그들이 잘못해서 만들어낸 것일까? 그들에게 진심으로 묻고 싶은 것이다.



김동화